

# 社會開發의 基礎로서 社會理論의 理解

— T. Parsons의 社會體制理論을 中心으로 —

## Understanding T. Parsons' Theory of Social System as a Basis for Social Development.

李 壽 長

(韓國地方行政研究院 研究員)

### 目 次

- I. 머릿말
- II. 開發과 社會的 體制性的 增大
- III. Parsons의 社會理論
- IV. 社會體制理論의 視角에서 본 社會開發의 方向
- V. 맺음말

### I. 머릿말.

第2次 世界大戰 이후 新生國의 開發 내지 發展 理論<sup>1)</sup>은 대체로 經濟成長論에서 시작하여 經濟開發論을 거쳐 社會開發 또는 發展論으로 展開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初期의 開發論者들은 國家의 絶對的 貧困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量的 成長을 目標價値로 構造的 變動을 手段價値로 하는 開發戰

略을 追求해온 결과 全體的·總量的 成長은 어느 정도 이룩하였지만 産業間·階層間·地域間 不均衡現象은 더욱 심화되어 온 것도 또한 사실이다.<sup>2)</sup>

이러한 社會的 問題點이 表出, 深化됨에 따라 經濟發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純經濟的 要因 뿐만 아니라 非經濟的 要因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sup>3)</sup> 經濟發展의 先行條件내지 併行條件으로서의 社會開發의 問題에 關心을 가지게 되었다.<sup>4)</sup>

이렇게 經濟開發의 副產物로 表出된 여러가지 社會的 逆機能에 合理的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 이른바 社會開發 내지 社會發展(social development)의 概念이다.<sup>5)</sup> 이 개념이 나타난 초기

2) 우리나라의 경우 經濟成長과 構造的 不均衡의 問題에 대해서는 다음 論文을 參照할 것.

李大根, "經濟成長과 構造的 不均衡," 韓國社會科學研究協議會 編, 「韓國社會의 變化와 問題」(서울: 法文社, 1986), pp.175~201.

3) 이러한 점을 보다 具體的으로 지적한 文獻은 U.N.의 報告書이다.

United Nations, *The U.N. Development Decade : Proposals for Action* (New York, 1962), pp.2~3.

4) 우리나라에서도 第5次 經濟開發計劃에서부터 그 이름을 經濟社會發展計劃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5) 權 泰 竣 · 金 光 雄 共 著, 「韓國의 地域社會開發」(서

1) '發展'이나 '開發'은 모두 價値含蓄的인 개념으로서 發展은 持向性을 가진 含蓄된 價値의 增大를 수반하는 長期的 社會構造變動을 의미하는 多次元的인 개념인데 비해 開發은 發展의 태두리內에서의 하나의 現象이며 그것보다 計劃的이며 意圖的인 政策의 意味를 갖고 있으나 본 稿에서는 相互交換的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에는 經濟開發과 병행하여 社會的 서비스를 開發하는 것을 일컬었으나 점차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되어 그 후 經濟發展의 均衡의 문제와 결부되어 國民福祉의 향상을 計劃적으로 개발하는 의미로 변화되었다.<sup>6)</sup> 다시 말해 社會開發은 人間의 幸福實現을 위한 核心的 價値를 성취하기 위하여 社會構造에 어떤 의도적 변화를 가할려는 計劃된 社會變動의 過程이라 할 수 있다.

社會開發을 計劃된 社會構造變動의 過程으로 이해할 때 論議되어야 할 次元은 여러가지가 있으나<sup>7)</sup> 가장 중요한 점은 現在의 狀況認識과 未來의 理想的 當爲論에 대한 價値判斷과 現實을 照明, 認知하는 理論的·理念的 視點의 問題일 것이다<sup>8)</sup>. 다시 말해 어떠한 價値指向 (value orientation)과 理論的 準據(theoretical reference) 로써 現狀을 分析, 規定하며 바람직한 未來를 投射하느냐에 따라 社會開發의 目標과 對象 그리고 方法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社會開發의 力動性을 把握, 說明하는 接近方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본 稿에서는 社會的 體制性의 增大過程 (growing societal systemness)을 開發 내지 發展으로 前提하고<sup>9)</sup> 社會體制的 動態的

變化過程을 均衡(equilibrium)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Parsons의 社會體制理論(theory of social system)의 視角에서 社會開發의 意味와 方向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開發과 社會的 體制性의 增大<sup>10)</sup>

### 1. 社會的 體制性增大를 확인하기 위한 對比法의 使用

發展, 成長, 退化 등의 개념 또는 과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現象이 실제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說明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社會는 항상 변화하여 왔으며 지금도 변화하고 있으므로 社會現狀을 적절히 記述(description)할 수 있는 개념으로써 變化의 方向性이나 必然性 또는 繼續性을 내포한 개념이 아닌 社會變化라는 개념으로 發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어느 일정한 時點에 焦點을 두어 어떤 圖式(scheme), 模型(model) 또는 類型變數(pattern variable)로서 社會와 體制的 對照的인 特性을 二分法의 方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社會構造, 人間關係, 相互作用, 또는 相互依存性의 大轉換過程(great process of transformation)에서 나타나는 多樣한 現象, 예를 들어 産業化, 生産性의 向上, 都市化의 深化, 教育의 擴散, 移動性의 增大, 社會的 分業의 變化, 專門化의 擴大,

發展 그리고 ⑤近代化 등이 그것이다.  
S.Chodak, *Societal Development: Five Approaches with Conclusions from Comparative Analysi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10) 以下는 주로 Chodak의 論議를 중심으로 하였다. *Ibid*, pp.42-76.

출: 法文社, 1981), p.60.

6) 崔 朱喆, 「새마을運動의 理論과 哲學」, (서울: 集文堂, 1978), pp.177~186.

權 泰坡·金 光雄, 前掲書, p.60에서 再引用.

7) 權 泰坡·金 光雄教授는 다섯가지 次元을 提示하고 있는데 즉 ① 變化의 時間的, 空間的 次元 ② 變化의 單位 ③ 變動의 速度 ④ 變動의 方向과 價値 ⑤ 計劃된 變動과 우연한 變動 등이 그것이다. 上掲書, pp.65~68.

8) 金 一鐵, 「社會開發의 論理 - 人間慾求와 社會構造를 中心으로 -」, 「韓國社會學」, 第16編, 韓國社會學會, 1982, pp.7~8.

9) Chodak은 開發을 설명하는 接近方法을 다섯가지로 分類하고 있는데 ① 進化論的 接近方法 ② 體制性의 增大 ③ 安定追求에 있어 刷新과 開發 ④ 經濟 및 社會

文化的 態度的 變化 등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社會의 相互依存性 즉, 體制性 增大를 發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二分法의 方法으로 社會의 體制性增大를 설명하는 理論으로 들 수 있는 것은 Cooley의 一次集團(primary group)과 二次集團(secondary group),<sup>11)</sup> Tönnies의 共同社會(Gemeinschaft)와 利益社會(Gesellschaft),<sup>12)</sup> Durkheim의 機械的 紐帶性(mechanical solidarity)와 有機的 紐帶性(organic solidarity),<sup>13)</sup> Weber의 Vergemeinschaftung과 Vergesellschaftung,<sup>14)</sup> Parsons의 類型變數 및 그밖에 Maine, Redfield, Becker 등의 이론이 있다.

## 2. 體制性增大의 過程 및 特徵

社會의 發展을 體制性增大의 觀點에서 볼 때 그것은 ① 社會의 交換의 通路와 量이 倍加되는 過程 ② 새롭고 전문화된 役割이 分化되고 組織이 制度化되고 自律的인 體制가 생겨나는 한편 이들 간의 相互依存性이 增大되는 過程 ③ 體制間 및 體制內的 體系的 相互連繫性 생겨나는 過程 ④ 世界的인 體系的 組織이 생성되는 過程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過程은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은 性質을 갖는다.

첫째, 社會體制性의 增大過程은 逆行될 수 없으며 方向性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發展過程에 있어 體

制의 不連續性이나 아노미현상(anomy), 不均衡現象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것은 連續性을 가지며 그 결과 보다 복잡한 構造를 갖는 體制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定해진 目標(equifinality or predestination)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며 따라서 目的論에 의해 설명할 수는 없다.

둘째, 體制性이 增大될수록 自己充足性(self-sufficiency)은 감소되며 體制單位間的 相互補完性은 增大된다. 따라서 社會의 交換通路의 密度가 增大되며 實際的이며 規格化되며 反復的인 交換의 量이 늘어나게 된다.

셋째, 體制性의 增大는 役割, 組織 및 體制의 分化와 統合現象을 초래케 하며 이는 새로운 體制의 지속적인 生成을 수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産業化가 體制性增大의 轉換點이 된다.

## 3. 相互依存性의 類型

社會體制를 相互依存性이 증대하는 가운데서 專門化된 構成要素의 本來的 分化過程에서 생성되는 體系的 相互作用의 構造로 이해할 때 이러한 社會體制의 構造內에는 세가지 형태의 巨視的 相互依存性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共存(coexistence)의 相互依存性이다.

이는 人間, 集團, 社會가 공간상에 모여살 경우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던 서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과 같이 機能性 補完性(functional complementarity)을 갖지 않는 相互依存性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分化는 個個人的 獨立的인 노력으로 나타나게 되나 개개의 行爲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므로 모든 行爲은 相互依存性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 人口가 增加하고 交通, 通信이 발달됨에 따라 共存

11) C.H.Cooley, *Social Organization* (Glencoe, Ill : The Free Press, 1956).

12) F.Tönnies, *Community and Society*, trans.by C.P.Loomis (East Lansing, Mich. :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1957).

13) E.Durkheim,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trans, by G.Simpson(Glencoe, Ill : The Free Press, 1949).

14) M.Weber,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trans, by A.M.Henderson & T.Parsons (New York : The Free Press, 1966).

의 相互依存性은 증대하게 된다.

둘째, 補完的 相互依存性이다.

이는 分業, 專門化 그리고 相互交換에 關聯되는 單位들간의 補完性으로부터 생겨나는 相互依存性으로써 주로 政治, 經濟의 構造에서 발견된다.

세째, 準有機體的(semiorganismic) 相互依存性이다.

이는 全體(whole)에 대해 전혀 自律性을 갖지 못하는 部分間的 相互依存性인 有機體의 그것과는 달리 中心에 대해서는 복종적이면서도 單位들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獨立性을 가지면서 相互補完性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그 代表的 例가 關稅制이다. 다시 말해 自身의 目的을 위하여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上位로부터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存在하는 組織이 가지는 補完性을 말한다.

### III. Parsons의 社會理論

#### 1. 社會理論으로서의 Parsons 理論의 意義

50년이상 하나의 理論을 구성하기 위하여 Parsons가 바친 努力과 그에 따른 學問的 成果는 그 抽象性 및 分化의 水準, 社會的·理論的 範圍, 그리고 體系성에 있어 어느 누구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다. Parsons는 功利主義의 行動理論을 거부하면서 古典의 行爲理論—주로 Marshall, Pareto, Durkheim 및 Weber의 理論—의 수렴적 要素를 擴大시켜 이른바 自意的 行爲理論 (voluntaristic theory of action)을 제시하였다. 즉, 行爲는 주어진 個人의 目標達成을 위한 合理的 計算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人間行爲는 본질적으로 價値의 問題(Marshall)이며 非合理的(Weber), 非論理的(Pareto), 現實的(Durkheim)인

要素에 좌우된다고 보고 있다.<sup>15)</sup> 이후 그는 모든 行爲를 다루는 科學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一般行爲理論(general theory of action)을 구성하였으며<sup>16)</sup> 나아가 社會體制의 構造와 機能을 分析하기 위한 概念圖式을 體系적이고 一般화된 유형으로 제시하였다.<sup>17)</sup>

이렇게 볼 때 Parsons의 社會理論은 行爲理論과 體制理論으로 區分할 수 있으며 前者를 後者に 연결시키고 있다.<sup>18)</sup> 즉, 體制理論—境界維持體制類型의 概念的 戰略(a conceptual strategy indicated by the model of a boundary-maintaining system)—을 行爲나 社會에 적용시키려는 過程에서 行爲나 社會라는 對象領域을 구성하고 있다.<sup>19)</sup>

#### 2. 行爲理論

Parsons에 있어서 社會體制理論은 行爲理論의 延長線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社會體制(social system)는 行爲體制의 下位體制인 生理的

15) T.Parsons, *The Structure of Social Action*, 2nd ed.(New York : The Free Press,1949).

16) T.Parsons & E.A.Shils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New York : Harper & Row, 1951).

17) T.Parsons, *The Social System* (Glencoe, Ill : The Free Press, 1951).

18) Parsons는 최근의 論文에서 이러한 連結作業이 성공했다고 확신하고 있으나 K.Menzies는 두개의 理論이 근본적으로 혼란상태에 있어 行爲理論은 理想主義의 傳統에서, 體制理論은 實證主義의 傳統에서 각각 다르게 접근 되고 있다고 批判한다.

T.Parsons, "Pattern Variables Revisited : A Response to R. Dubin," in T.Parsons (ed.) *Sociological Theory and Modern Society* (New York : The Free Press, 1967).

K.Menzies, *Talcott Parsons and the Social Image of Man* (London,1976).

J.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2 Lifeworld and System : A Critique of Functionalist Reason*, trans.by T. McCarthy(Boston : Beacon Press, 1987),pp.200~201에서 再引用.

19) J.Habermas, *op,cit*,p.200.

慾求의 體制(biogenic system), 人性體制(personality system) 및 文化體制(cultural system)와 같은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sup>20)</sup>

Parsons는 人間의 社會的 行爲는 特정한 時間的, 空間的 狀況에 대한 個人의 行爲指向(action orientation)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 行爲指向을 人間의 慾求充足에 관계되는 動機指向(motivational orientation)과 動機指向의 指針提供에 관계되는 價値指向(value orientation)으로 區分한다. 또한 動機指向을 認知的(cognitive), 情感的(cathetic), 評價的(evaluative)指向으로, 價値指向을 認知的, 鑑賞的(appreciative), 道德的(moral)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sup>21)</sup>

個人의 行爲는 이상과 같은 行爲者의 각 狀況에 대한 각각 다른 指向의 樣相(mode of orientation)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서로 다른 指向樣相을 토대로 個人이 어떤 특정한 狀況에 직면했을 때 실제로 行爲를 實踐에 옮기기 전에 行爲者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行爲類型變數(pattern variables)중에서 상황에 적합한 하나씩의 類型變數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sup>22)</sup>

- ① 感情的(affectivity) - 非感性的(affective neutrality)
- ② 利己的(self-orientation) - 集團的(collectivity orientation)
- ③ 普遍的(universalism) - 特殊的(particularism)
- ④ 成就的(achievement) - 歸屬的(ascripton)

### ⑤ 制限的(specificity) - 非制限的(diffuseness)

Parsons는 이러한 다섯가지 類型變數를 人性, 文化 및 社會體制的 價値指向을 記述할 수 있는 道具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sup>23)</sup> 그의 行爲理論은 行爲者의 自意的인 側面을 강조하면서 個人의 行爲가 어떻게 社會體制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論하고 있다.

### 3. 體制理論

Parsons의 社會理論은 기본적으로 均衡 그것도 動的 均衡理論이다. 均衡(equilibrium)은 體制를 구성하고 있는 要素들간의 關係가 어떤 方向으로도 기울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社會現狀을 均衡의 개념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Parsons는 自然科學으로부터 여러가지 法則-慣性의 法則, 作用과 反作用의 法則 및 恆常性的 法則-을借用하여 社會學的인 變容을 거쳐 社會的 法則으로 만들고 있다.

우선 慣性的 法則에 의거하여 社會的 相互作用은 지속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社會過程의 第1法則(First Law of Social Process)을 만들어 낸다.<sup>24)</sup>

한편 作用과 反作用의 法則을 行爲體制에 적용하여 行爲體制內에서 어떤 하나의 方向에서 변화가 발생되면 그 반대편에서 同一한 動機的 힘을 갖는 相補的 變化에 의하여 형평을 이루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sup>25)</sup> 이 原理에 따른 社會的 關係가 '期待의 相補性'(complementarity of expectation) 내지 '期待의 相互交換性'(reciprocity of expectation)이다.

20) T.Parsons, *Societies : Evolutionary and the Comparative Perspectives*(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1966), pp.8-29.

21) T.Parsons, *The Social System*, p.57 및 T. Parsons & E.A. Shils, *op.cit.*, pp.58-60.

22) T.Parsons, *The Social System*, p.67.

23) T.Parsons & E.A.Shils, *op.cit.*, p.76.

24) T.Parsons, *The Social System*, p.205.

25) T.Parsons, R.F.Bales & E.A. Shils, *Working Papers in the Theory of Action* (Glencoe, Ill : The Free Press, 1953), p.102.

이러한 균형회복의 논리는 恒常성의 法則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항상성'이란 하나의 有機體가 어떤 상태나 조건을 언제나 유지하며 이에 변화가 생겼을 때 原狀을 회복하려는 경향을 말하는 것으로 이 法則이 社會過程의 第1法則과 均衡回復의 原理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理論的 根據가 될 수 있다.

그런데 Parsons에 있어 均衡은 現狀維持를 위한 靜的 均衡(static equilibrium)이 아닌 體制의 질서 정연한 變動過程으로써의 動的 均衡이며<sup>26)</sup> 이것이 사회과정의 동태적인 동기를 분석하기 위한 準據點이며 나아가서 社會實際의 궁극적인 目標의 狀態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Parsons의 體制理論은 均衡이라는 예정된 상태를 향하여 면밀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基本假定아래서 Parsons는 社會體制理論을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社會體制는 行爲者사이의 相互作用의 體制이다. 다시 말해 社會體制는 制度化된 價值體制에 의해 특징지어진 상황에서 어떤 役割을 수행하는 多數의 行爲者간의 相互作用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體制인 것이다.<sup>27)</sup> 이러한 行爲者간의 相互作用을 설명하기 위하여 期待의 相補性 내지 相互交換性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Parsons는 이것을 相互作用의 과정에서 모든 行爲者는 他者에 대하여 期待體制를 형성하며 이 기대를 他者의 行爲에 대한 自我의 希望 내지 熱望으로 定義하고 있다.<sup>28)</sup>

그리고 期待의 相補性은 두가지 人間의 同調的本性에 의해 유지, 지속되는 데 그 하나는 相互作

用的 過程에서 他者에의 期待에 대한 同調<sup>29)</sup>이고 다른 하나는 共通價値에 대한 人間의 同調인 것이다.<sup>30)</sup>

또한 均衡維持의 기초로서 共通價値와 他者의 期待를 學習·內面化하는 과정인 社會化를 통해 相補的 期待가 形成된다고 보고 있다.<sup>31)</sup> 한편 Parsons는 안정된 社會的 相互作用의 狀態 즉, 均衡을 파괴하려는 同調逸脫(conformity - deviance)의 경향이 社會體制內에 存在하고 있다고 보고<sup>32)</sup> 이것이 發生하는 과정과 그 해결方案을 설명하고 있다. 즉, 自我가 愛憎併存(ambivalence)의 상태에 놓이게 되면 他者에 대한 情感的 愛着(cathexis)을 버리지 못하거나 價値類型이 너무 강하게 內面化되어 포기할 수 없을 때 일탈동기가 발생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愛憎併存構造의 한 쪽을 억제 하면서 다른 한 쪽을 顯在적으로 表出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Parsons는 強制的 同調(compulsive conformity)와 強制的 疏外(compulsive alienation)의 개념을 창출한다.<sup>33)</sup> 이러한 일탈적 경향을 원상회복(re-equilibrating)시키는 과정으로서 社會的 統制를 논의 하면서 그 장치로 支持(support), 許容(permissive) 및 制限(restriction)등의 3가지를 들고 있다.<sup>34)</sup>

이상에서 살펴본 體制理論의 네가지 속성 즉, 期待의 相補性, 人間의 同調的本性, 社會化를 통해 共通價値의 內面化 그리고 逸脫과 社會統制 등으로 인해 社會體制는 均衡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方向으로 계속 변동하게 되는 것이다.

26) T.Parsons, *The Social System* p.36.

27) T.Parsons & N.J.Smelser, *Economy and Society: A Study in the Integration of Economic and Social Theory* (New York: The Free Press, 1956), pp.8-16.

28) T.Parsons, *The Social System*, p. 37.

29) *Ibid.*, p.37.

30) *Ibid.*, p.41.

31) *Ibid.*, p.42.

32) *Ibid.*, p.249.

33) *Ibid.*, p.254.

34) *Ibid.*, p.299-230.

그런데 이러한 社會體制가 均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獨立의인 體制의 機能의 必須要件 (independent functional imperatives of the system)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Parsons는 주장하고 있다.<sup>35)</sup>

우선 社會體制는 制度化된 價値體制에 의해 규정되므로 價値體制와 그 制度化的 統合을 維持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지과정은 價値體制를 變化시키려는 壓力에 대한 安定化를 의미하므로 潛在類型維持와 緊張管理(latent pattern maintenance and tension management : L)機能이라 불렀다.<sup>36)</sup> 이러한 機能을 수행하는 代表的인 例로 들 수 있는 것이 文化的 制度이다.

그리고 모든 社會體制는 外部環境속에서 機能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體制와 環境간의 相互交換의 過程으로서 目標達成(goal attainment : G) 및 適應(adaptation : A)機能이 있어야 한다. 目標은 價値體制가 確立·制度化되었을 때 體制의 安定性을 극대화시키는 體制와 環境간 關係를 뜻하므로 體制는 環境의 諸要素를 통제하여 目標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機能을 수행하는 것이 政府(polity)이다. 또한 適應機能도 目標을 달성시키기 위하여 環境을 統制하는 것과 관련되나 다양한 目標과 下位體制를 갖고 있는 複合體制의 경우 目標達成과는 다른 分化된 機能을 수행해야 하는데 다시 말해 社會體制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自然的·社會的 環境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sup>37)</sup> 주로 經濟가 이러한 機能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社會的 相互作用을 하는 여러가지 單位들은 體制와 효과적인 機能을 수행할 수 있도록

록 그 關係에 있어 紐帶性을 견지해야 하는데 이것이 統合機能(integration : I)인데<sup>38)</sup> 주로 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Parsons의 體制理論은 그의 行爲理論과 달리 社會體制가 存在하기 위해서 반드시 充足되지 않으면 안되는 絕對必須의인 機能이 무엇인가를 論하고 있다. 다시 말해 社會體制의 要求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社會體制全般에 있어 個人의 行爲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sup>39)</sup>

결론적으로 Parsons의 社會行爲 및 體制理論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經驗主義의 時代에서 그리고 事實과 實用主義의 땅에서<sup>40)</sup>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자세하고 論理的으로 가장 잘 統合된 概念의 分析의 틀을 구성했다는 사실이다.<sup>41)</sup> 따라서 그 후 수많은 批判에도 불구하고<sup>42)</sup> 그의 理論的 體系는 現代 社會學에서 社會實際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paradigma적 위치(paradigmatic consolidation)을 점하고 있다.

#### IV. 社會體制理論의 視角에서 본 社會開發의 方向

38) *Ibid.*, p.18.

39) 이러한 Parsons의 絕對機能理論을 K.Menzies는 社會的 功利主義(social utilitarianism)라 부르고 있다. K.Menzies, *op.cit.*, p.41.

40) W.C.Mitchell, *Sociological Analysis and Politics : The Theory of Talcott Parsons*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1967), p.189.

41) G.Rocher, *T.Parsons and American Sociology* (London : Nelson, 1972), pp.152-153.

42) Parsons에 대한 批判은 크게 두가지 세력으로 區分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美國內的 새로운 社會學者(new sociologists)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지역의 葛藤理論家들이다. 前者에는 C.W.Mills, Horowitz, Gouldner 등으로 구성된 急進的 社會學者群이고 後者에는 Coser, Dahrendorf, Lockwood 등이 속한다.

35) T.Parsons, R.F.Bales & E.A.Shils, *op.cit.*, chaps.III and V. T.Parsons, & N.J.Smelser, *op.cit.*, p.16에서 再引用.

36) T.Parsons, & N.J.Smelser, *op.cit.*, pp.16-17.

37) *Ibid.*, pp.17-18.

## 1. 類型變數에 의한 社會의 區分

흔히 社會開發을 나타내는 本質的 要素로서 社會構造의 分化, 社會的 移動性的 增大, 價値觀의 近代化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두가지 形態의 社會 즉, 低開發(傳統) 社會와 先進(近代) 社會를 對比하는 基準으로써 Parsons의 類型變數 - 그 중에서 도 특히 普遍的 - 特殊的, 成就的 - 歸屬的, 制限的 - 非制限的 - 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傳統社會에 있어 社會的 役割은 歸屬的이며 機能的으로 非制限的이며 特殊的인 選好와 基準에 의해 調整되는데 비해 近代社會의 경우 그것은 보다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機能的 專門性에 따라 分化되어 있고 普遍的 基準과 規範을 指向하면서 成就를 위한 경쟁적 노력에 의해 획득되어 진다.

따라서 代案의 行爲選擇을 比較하기 위한 道具로서 類型變數를 開發研究의 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Parsons의 類型變數는 전통-근대社會를 對比하는데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社會開發의 方向을 설정하는데 있어 手段의 役割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변함없이 흐르듯이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社會的 變動過程의 方向과 內容을 類型變數의 틀로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類型變數로 설명하는 傳統-近代社會의 對比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相對的일 수도 있다. 傳統社會를 非制限的 役割의 교착상태(agglutination)로 규정하더라도 그 속에는 어떤 專門化나 社會的 分業이 존재할 수 있고 반대로 近代社會에서도 歸屬的 메카니즘에 의한 相互作用의 영역이 있다. 따라서 類型變數에 의해 兩社會를 對比시키거나 開發의 方向을 설정하는데 있어 어떤 變數를 決定的으로 적용하거나 규정하기 보다는 相對的으로 우

세한 (relative predominance) 것으로 인식하여 社會개발에 관한 理論을 구성하는 支柱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43)</sup>

## 2. 構造·機能的 側面에서 본 社會開發의 方向

Parsons의 社會體制理論은 社會를 어떤 規則性이나 類型을 가진 部分들의 集合인 體制的全體(systemic whole)로 보아 그 體制的 特征적 요소 즉, 類型을 構造로 파악하며 構造의 屬性을 機能으로 설명하는 構造-機能主義的 社會理論이다. 다시 말해 Parsons는 A-G-I-L이라는 機能的 圖式으로써 社會構造의 安定과 變化 즉, 動的 均衡을 설명하고 있다.<sup>44)</sup> 이러한 네가지 機能들이 어떠한 特性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社會開發의 方向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適應機能으로서 이는 社會體制가 環境이나 다른 外部的 條件에 적응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로 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하나의 社會體制는 다른 社會體制와의 相互關係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그를 싸고 있는 環境에 적응해야 하며 만일 다른 社會體制와 關係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 相互作用의 과정에서 볼 때 經濟가 이러한 機能을 담당하고 있으며, 下位體制로서의 經濟도 그 自體의 적응문제를 갖고 있다. 요컨대 經濟의 適應機能은 社會全體의 適應의 專門化된 機能인 것이다.

43) 이러한 側面에서 社會開發을 論한 대표적 學者가 Smelser 이다.

N.J.Smelser, *Essays in Sociological Explana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8).

44) Parsons 는 過程과 變動을 구별하고 社會體制内の 力學關係를 均衡이라는 과정과 體制自體의 變動 즉, 構造의 變動(structural change)을 區分하고 있는데 본 稿에서는 體制的 內在의 變動過程인 均衡에 焦點을 두어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目標達成機能은 政體 즉, 政府의 特種적 機能으로서 經濟에 比견할 만한 역할을 수행한다. 目標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적절하면서도 手段的으로 중요한 對象이나 行爲를 動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政治的으로 權力을 최대한 活用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세째, 統合機能은 體制의 内部的 調整에 그 目的이 있다. 社會的 統制를 통하여 社會內的 構成員이나 集團間的 紐帶性(solidarity)의 정도가 규정되며 나아가서 이를 강제한다. 다시 말해 統合機能에 의해 상호양보의 한계와 조건이 결정되며 社會에서 수행하는 役割에 의해 의미가 부여된다.

네째, 維持·管理機能은 行爲者가 個人的·心理的 安定維持를 위한 手段과 이를 상징적 형태로 表出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機能은 일반적으로 潜在的이기 때문에 具體的으로 알 수는 없으나 制度化된 文化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네가지 機能이 社會體制內에서 어떠한 相互作用을 하게 되는가를 經濟를 中心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왜냐 하면 앞에서 言及하였듯이 社會全體의 適應機能을 經濟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政府는 體制의 目標達成을 위하여 經濟의 產物인 所得과 그에 따른 富를 이용하는데 統合機能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經濟的 產物을 活用하고 있다. 또한 制度化된 文化類型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經濟的 投入이 必要한 것이다. 요컨대 經濟의 產物인 所得과 그에 따른 富가 社會체제의 나머지 세 가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政府, 統合 및 文化類型이 經濟에 作用하는 要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政府의 경우를 보면 經濟가 政府로부터 받

는 要素는 一聯의 權力關係이다. 이는 體制의 目標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一般의 能力(capacity)으로서 可視的 實體를 조작할 수 있는 추상적 능력을 말한다. 여기에는 所得이나 富 뿐만 아니라 法體制를 통제할 수 있는 能力도 포함된다. 이러한 經濟에의 權力投入 내지 關與는 購買力이 빈약한 社會에서 뿐만 아니라 선진화된 社會에서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강력한 財政政策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統合機能이 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그것은 Schumpeter 的인 企業家精神(entrepreneurship)이라기 보다는<sup>45)</sup> 紐帶性이라 하겠다. 복합적인 經濟組織을 가진 고도로 發展된 社會에서는 企業가 정신이 經濟에의 投入要素로 機能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社會에 있어서는 그것보다 오히려 構成員들간의 關係의 內容과 그 정도인 維帶性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어떤 組織의 構成員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基準과 그 集團構成員들간의 關係가 生産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봉건시대의 國王과 領主, 그리고 農隸間的 關係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文化的 要因이 經濟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基本的이며 包括的인 것으로서 科學的·技術的 知識으로부터 극단적인 信仰이나 迷信에 이르기까지 현대 社會의 모든 現狀(all state of arts)이 經濟에 投入,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經濟 즉, 適應機能과 나머지 機能과의 關係는 各 機能의 對等性을 前提로 한 것이다. 그러나 社會의 特性에 따라 機能間的 相對的 重要性이 달라 질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어떤 機能은 다른 機能의 補完的·從屬的 位置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機能間的 相對的 重要性 특

45) T.Parsons & N.J.Smelser, *op.cit.*

히 가장 중요한 機能을 앞에서 구분한 傳統-近代 社會라는 二分法的 觀點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어떠한 社會이든지 그 社會의 安定과 社會 價值體制의 制度化, 內面化를 위해서는 維持·管理 機能이 가장 중요하다.<sup>46)</sup> 이렇게 維持·管理 機能을 제외하면 傳統社會에 있어서는 統合機能이, 近代 社會에서는 適應機能이 상대적 重要性에 있어 最上位의 位置를 점하게 될 것이다. 傳統社會의 경우 行爲者의 社會의 地位와 그 役割을 결정하는 주된 要因은 歸屬性 즉, 紐帶性이며, 近代社會에서는 복잡한 環境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問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兩社會가운데 어떤 轉移社會(intermediate society)의 존재를 가정한다면 그 社會의 最上位 機能은 目標達成이 될 것이다.<sup>47)</sup>

이상과 같은 社會體制 各 機能의 特性과 機能간의 相互作用 및 相對의 重要性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社會開發의 方向을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社會開發은 社會構造에 어떤 의도적 변화를 가하여 보다 좋은 상태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人間의 慾求를 充足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社會의 實在的 構造를 變化시켜 이에따라 人間의 認知的 現象 構造의 變化를 가져오게 하여 行爲體制의 變化를 유도하는 社會開發이 되어야 할 것이다.<sup>48)</sup>

46) Parsons는 네가지 機能중에서 適應機能을 最上位에, 維持管理機能을 그 아래에 두고 있다. T.Parsons, *Structure and Process in Modern Societies* (Glencoe, Ill : The Free Press, 1960), pp. 174-177. B.F.Hoselitz, "Development and the Theory of Social Systems," in M.Stanley (ed), *Social Development : Critical Perspectives* (New York : Basic Books, Inc, 1972), P.62 Note 13에서 再引用.

47) Hoselitz는 社會를 原始社會, 農業社會, 近代社會로 區分하여 각각에 있어 統合機能, 目標達成機能, 適應機能을 最上位에 두고 있다. B.F.Hoselitz, *op.cit.*, pp.54.

48) 金一鐵, 前揭論文, pp.9-10.

둘째, 이러한 行爲體制의 變化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經濟開發過程에서 야기되는 逆機能의 해소라는 手段의 側面보다는 經濟開發을 통하여 이룩되어야 할 궁극적인 社會價値의 實現이라는 目標的 側面을 강조하는 社會開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社會開發이 追求하는 最高의 社會價値는 人間의 福祉增進이며 이를 위한 最少限의 要素가 社會의 衡平 즉, 惠擇의 公平한 分配이다. 따라서 經濟開發을 통하여 생성되는 所得이나 富 그리고 기타 서비스를 社會構成員들이 均等하게 향유할 수 있게 하는 經濟體制의 造成에 社會開發의 焦點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 社會體制가 國民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얼마나 效率의으로 機能하며 어떠한 社會的 與件을 제공하느냐 하는 側面에서 政治·行政의 權力體制의 能力도 중요하나<sup>49)</sup> 이와 並行하여 各種 利益團體나 第3 sector와 같은 民間部門 組織의 育成도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助長하는 方向으로 社會開發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V. 맺음말

開發을 설명하는 모든 接近方法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特徵은 세계적인 規模의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變動을 몇가지 제한된 概要的인 틀이나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점이다. 이를 좀더 細分하여 記述하면 다음과 같다.<sup>50)</sup>

49) Etzioni는 權力에 의한 社會構造의 變動을 societal guidance 라는 側面에서 고찰하고 있다.

A.Etzioni, *The Active Society : A Theory of Societal and Political Processes* (New York : The Free Press, 1968), pp.94-129.

50) 金環東, "近代化를 둘러싼 爭點들 - 社會學的 展望" 金環東 外 (共著), 「近代化 - 現實과 未來」, (서울 大學校 出版部, 1979), pp.7-19

첫째, 開發의 基準을 설정하는데 있어 사고의 경직성이다.

둘째, 開發의 理論에서 變動의 單一方向性(unidirectionality)과 社會體制의 同質化를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세째, 開發의 同質性을 설명하는 基準의 선택에 있어 概念定義가 恣意的이다.

네째, 이러한 恣意性의 源頭은 西歐偏向의 自己民族中心主義的(ethnocentrism)이다.

끝으로 이와 병행하여 開發理論이 항상 國民國家社會에 한정되어 있고 國際的인 맥락이 경시되어 있다.

이러한 側面에서 볼 때 Parsons의 社會體制理論도 開發이라는 社會現象을 說明하고 未來를 豫見하는데 있어 그 有用性에 한계가 있다.

우선 Parsons의 理論은 相互作用의 類型이 변화 없이 안정되는 방식에 重點을 두고 있으며 어떤 變化가 발생되었을 경우 과거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방식에 焦點을 두는<sup>51)</sup> 保守的 偏向性을 갖고 있다.

또한 Parsons가 직접 밝히고 있듯이 社會의 構造的 變動(structural change)의 說明에 대하여 회의적이며<sup>52)</sup> 따라서 變動이 발생될 가능성을 逸脫의 要因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體制內의 變動(change within system)을 주로 說明하고 있다.<sup>53)</sup>

따라서 Parsons의 思考類型이나 理論的 틀이 기본적으로 變動이나 發展過程의 記述이나 分析·評價에 치중하고 있는 記述的 接近方法(descriptive model)이며 開發의 方向을 제시할 수 있는 處方的(prescriptive)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社會體制의 安定된 變動 즉, 發展을 均衡이라는 觀點에서 네가지 下位體制 내지 機能간의 相互作用과 社會體制의 環境과의 關係를 包括的·一般的인 概念圖式에서 說明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理論은 결코 낮게 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變化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우리의 社會現實을 감안할 때 그의 動的 均衡理論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우리의 社會發展 내지 開發의 方向을 設定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1) A.W.Gouldner, *The Coming Crisis of Western Sociology* (New York : Basic Books, Inc, 1970), p.231.

52) Parsons는 “現在の 知識段階에서 體制의 變動(change of system) 과정에 관한 理論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같은 理論은 體制의 過程에 관한 완벽한 法則을 알고 있어야 가능한데 우리는 이 法則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쓰고 있다.  
T.Parsons, *The Social System*, p.486.

53) 최근 Parsons 는 이러한 그의 理論的 弱點을 보완하기 위하여 進化論的 接近方法을 援용하여 社會의 構造變動을 說明하려는 理論的 試도를 하고 있다.  
T.Parsons, *The System of Modern Societies* (Englewood-cliff : Prentice-Hall, 1971).